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해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지친 영혼의 사람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세상에 대한 여유로움,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

뿌리 깊으면야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의지의 대상

↗새로운 생명력  
밑동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삶의 뿌리뽑힘. 살아나기가 쉽지 않은 환경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어  
고통을 대하는 의연한 태도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고통스런 삶과 맞서는 대결의지

▲1행-6행 : 고통과의 대면의지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희망 고통 뒤의 즐거움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희망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대구법  
희망

가자 고통이어 살 맞대고 가자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려는 당찬 의지

▲7행-11행 : 고통의 극복 의지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이기리라 마음먹으면, 마음을 비우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대구법, 설의법

고통과 설움의 땅 훑훑 지나서  
부정적 현실의 직접적 표현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삶의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 서자 : 의연함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 듯  
희망은 언젠가는 오고 만다.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삶의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힘든 현실, 생활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같이 어려움을 이겨낼 사람, 집단적 유대감의 확신.

▲12행-20행 : 고통 극복에의 희망의지

## ▣ 핵심 정리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성격 : 서정적, 희망적, 미래 지향적, 의지적

어조 : 희망에 찬 긍정적 어조

제재 : 상한 영혼의 고통과 설움. 고통스런 삶

주제 : 어려운 삶(고통과 서러움의 삶)을 이겨내고자 하는 희망의지

특징

- ① 힘든 여건 속에 살아남는 자연사물에 빗대어 인간 삶의 극복을 말하고 있음.
- ② 청유형 표현을 통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음
- ③ 다양한 수사법(대구, 설의)를 통해 중요내용을 강조하고 있음

출전 : <이 시대의 아벨> (1983)

## ▣ 이해하기

고정희의 시는 슬픈 이야기를 하지만 슬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희망을 본다. 이 시 또한 고통스런 삶 속에서도, 녹록지 않은 삶 속에서도 늘 희망을 잃지 말고 살 것을 말하고 있다.

상한 갈대, 밀동 잘린 새순, 뿌리없는 새순은 '고통과 설움의 땅' 속에서도 살아나고자 꿈틀대는 희망의지를 지닌 사람들의 비유적 표현들이다.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 또한 눈여겨볼 대목이다.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은 없다는 것. 당당히 대면하면 그 고통은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정희는 마지막 구절에서, 그 고통의 극복은 나 하나의 힘만이 아니라 다같이 힘든 생활 속에 놓인 '우리'들의 힘으로 가능함을 말함으로써 집단적 유대감, 공동체적 연대감의 희망 또한 잃지 않고 있다.

이 시는 '갈대'와 '부평초'라는 자연물을 비유적 이미지로 내세워 희망을 가지고 고통과 함께 하는 성숙한 삶의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시적 화자는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고통'에게 다가가, '고통'과 살을 맞대고 걸어가는 적극적인 대응 방식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겠다는 성숙한 삶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고통을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포용과 동반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면서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과 끝끝내 홀로 일어서는 강인한 의지만 있으면 어떤 '고통과 설움'에도 굴하지 않는 '뿌리 깊은 들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제 의식이 시의 표정을 매우 강렬하게 만들어 내고 있다.

## ▣ 핵심 시어의 의미

상한 갈대, 상한 영혼 : 인생의 시련 속에 내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

물, 개울, 등불 : 삶의 희망

지는 해, 캄캄한 밤 : 일시적인 세속적 장애물

## 작가 소개

고정희(1948-1991) : 시인, 전남 해남 출생. 한국신학대 졸업. 1975년 '현대시학'에 '연가'가 추천되어 등단했다.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 여성문학인 위원회 위원장. 시창작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 [그의 시들은 슬픔 이야기 하면서도 좌절이나 절망 혹은 한탄으로 이어지지 않고, 투쟁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역동적인 힘이 넘치는 것으로 평가되거나, 이는 바로 고정희 특유의 슬픔이 갖는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작품에 '상한 영혼을 위하여', '사랑법 첫째' 등이 있다. 시집으로 '누가 술틀을 밝고 있는가', '실락원 기행', '초혼제', '이 시대의 아벨', '눈물꽃', '지리산의 봄',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 '광주의 눈물비', '여성해방출사포', '아름다운 사람 하나' 등이 있다.

## ▣ 핵심 정리

이 작품은 상한 갈대, 뿌리 없이 떠돌면서도 질긴 생명력을 보이는 부평초의 이미지를 통해 시련과 고통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삶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고통을 함께 극복할 존재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시련을 감내하면 우리의 삶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주제 : 고통에 적극적으로 맞서 더욱 값진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
- 구성

1연	상한 영혼에게 고통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함
2연	고통의 존재에게 함께 갈 것을 제안함
3연	뿌리 깊은 벌판에서 마주 잡을 손을 기다림

## ★ 감상 POINT

### 1. 시어, 시구 풀이

- ① 충분히 흔들리자 ~ 고통에게로 가자 : 고통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을 나타낸다. 고통을 직시하고 대면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청유형 문장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 ② 외롭기로 작정하면 ~ 해가 문제라 : 홀로라도 고통을 이겨 내고자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 정도로 최선을 다하면 문제될 것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두 팔로 ~ 비탄이란 없느니라 : 순리에 따른 변화를 인위적으로 거스를 수 없듯이 현실의 시련도 순리에 따라 언젠가는 끝나게 된다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 화자의 태도

화자는 부정적 현실 상황으로 인한 고통을 수용하고 견뎌 내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자연과 인간사의 기본 이치, 함께 고통을 이겨 나갈 동반자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아픔이 사라지고 생명력이 가득 찬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미래 지향적이고 낙관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2. 시어의 상징적 의미

상한 갈대,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 역경과 고난을 거쳐 성숙해 질수 있는 존재
새순, 꽃, 개울, 등불	고통을 극복한 새로운 생명력과 인생의 열매, 삶의 희망
지는 해, 고통과 설움의 땅, 캄캄한 밤	부정적이 암울한 현실 상황, 삶의 고통이 존재하는 상황
뿌리 깊은 벌판	흔들림 없는 의지의 삶이 영위되는 공간, 삶의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 고통을 수용하여 성숙해진 삶
마주 잡을 손	함께 고통을 이겨 나갈 존재로 공동체적 연대감과 동반자 의식을 바탕으로 한 구원자, 조력자

### 3. <상한 영혼을 위하여>의 시적 상황

‘밀통이 잘리어도’, ‘지는 해’, ‘고통과 설움의 땅’, ‘캄캄한 밤’ 등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상징하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삶의 고통이 존재하는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하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마주 잡을 손 하나’라는, 함께 고통을 이겨 나갈 존재에 대한 믿음과 공동체 의식이 바탕이 된다. 또한, ‘새순은 돋거니’, ‘꽃은 피거니’, ‘개울은 흐르고’, ‘등불은 켜지듯’ 등에 나타나는, 삶에 대한 희망적 인식도 큰 힘이 된다.

#### 4. <상한 영혼을 위하여>의 역설적 인식을 통한 점층적 구성

점층적 구성은 시상 전개 과정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표현 방식이다. 이는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가 갈수록 강해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시에서는 1연의 '고통에게로 가자'와 2연의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3연의 '고통과 설움의 땅 훑훑 지나서 /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가 이에 해당된다. 점층적 구성을 할 때는 역설적 인식이 바탕을 이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시에서도 그와 같은 구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맞서자는 태도는 역설적 인식이 바탕이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고난과 시련에 직면할 때 마음을 굳게 가다듬고 극단적으로 고통과 함께 갈 것을 다짐함으로써 고난과 서러움을 이겨 내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 5. <상한 영혼을 위하여>의 반복적 요소

이 시에서는 특정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는 한편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거니'를 통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의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면서 설득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랴'의 설의적인 표현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세상 어디서나~은~', '영원한 ~이란 없느니라'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ㄴ, ㄹ, 모음' 등의 특정 음운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음악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 내용확인

### 1. 핵심 정리

갈래 : (            ), (            )

성격 : (            ), (            ), (            ), (            )

어조 : (            )에 찬 (            )적 어조

제재 : 상한 영혼의 (            )과 (            ). 고통스런 삶

주제 : 어려운 삶(고통과 서러움의 삶)을 이겨내고자 하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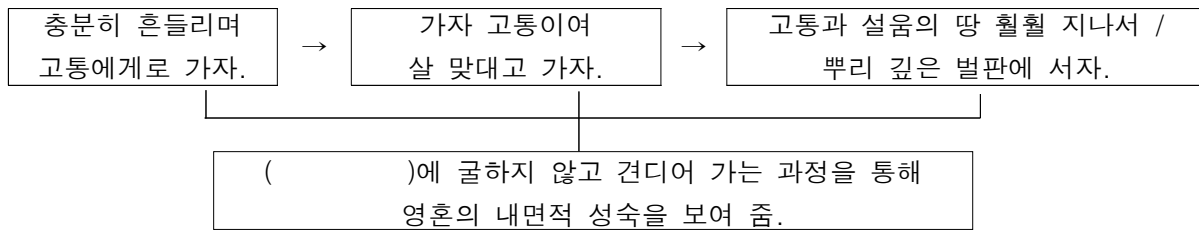
#### 특징

- ① 힘든 여건 속에 살아남는 (            )에 빚대어 인간 삶의 극복을 말하고 있음.
- ② (            ) 표현을 통해 독자의 (            )을 유도하고 있음
- ③ 다양한 수사법((            ), (            ))을(를) 통해 중요내용을 강조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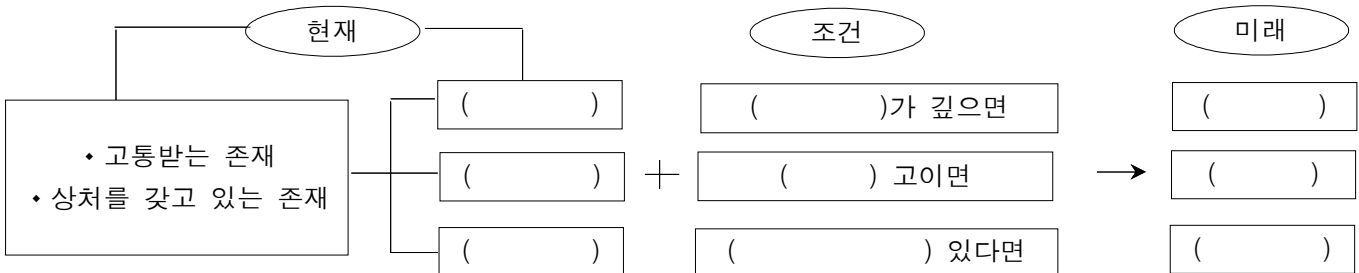
### 2. 구조 한눈에 보기

1연	상한 영혼에게 고통을 (            )고 (            )함
2연	고통의 존재에게 (            )을 제안함
3연	(            )에서 (            )을 기다림

### 3. 고통에 대한 화자의 태도



### 4. 한눈에 보기



### 5. 시어의 의미

상한 갈대,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	(            )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 역경과 고난을 거쳐 (            )해 질수 있는 존재
(            ), (            ) (            ), (            )	고통을 극복한 새로운 생명력과 인생의 열매, 삶의 희망
지는 (            ), (            )과 (            )의 땅, (            ) 밤	부정적이 암울한 현실 상황, 삶의 고통이 존재하는 상황
(            )	흔들림 없는 의지의 삶이 영위되는 공간, 삶의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 고통을 수용하여 성숙해진 삶
(            )	함께 고통을 이겨 나갈 존재로 공동체적 연대감과 동반자 의식을 바탕으로 한 구원자, 조력자

## 서술형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동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훑훑 지나서  
㉠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1. 이 시에서 상처 입고 고통스러운 존재를 상징하는 시어를 세 가지 찾아 적으라.

2. 이 글에서 종결 어미의 특징을 적고 그 종결 어미에서 오는 효과를 기술하시오.

3.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을 상징하는 시어(시구)를 세 가지 이상 찾아 적으라.

4. 이 세상 어디에서는 희망은 존재한다는 뜻을 지닌 시행을 찾아 적으라.

5. ㉠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6. ㉡에서 알 수 있는 작가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7. '마주 잡은 손'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8.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서술하시오.

9.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세 가지 이상 적으시오.  
1)

2)

3)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밀동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어  
㉠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앞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어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훑훑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깜깜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10. <보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윗글의 화자가 고통 받는 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의 말을 서술하시오.

<보기>

윗글은 1연에서 3연으로 갈수록 '고통에게로 가자 → 고통이어 살 맞대고 가자 → 고통과 설움의 땅 훑훑 지나서'와 같이 문장의 뜻을 점점 크게 하여 절정에 이르도록 하는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다.

<조건>

- 윗글의 주제가 드러나도록 서술할 것.
- 두 문장 이상의 말로 서술할 것.

11. ㉠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삶의 가치를 서술하시오.

<조건>

-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와 관련된 내용을 우선 서술할 것.
- '깜깜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12. 윗글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의미하는 시구를 찾아 서술하시오.

<보기>

고정희 작가의 시 세계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실현을 꿈꾸는 노래부터 민중에 대한 사랑과 관심, 여성 주의를 시선과 작가의 경험에 입각한 선구자적인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면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 모든 시편에서 목숨 있는 존재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노래하였다. 전통적인 가락과 씻김굿 형식을 빌려와 고난에 빠진 민중과 그들이 저항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기도 한 그는 자유, 민중, 여성 해방을 위해 노력한 시인이다.

<조건>

- 두 가지 이상을 제시하여 서술할 것.
- '~은(는) '고난에 빠진 민중'을 의미한다.'와 같은 하나의 문장 형식으로 서술할 것.

13. ㉠의 함축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조건>

-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드러나도록 서술할 것.
- ‘~ 의미이다.’와 같은 하나의 문장 형식으로 서술할 것.

# 정답 및 해설

## 내용확인

1. <답>

자유시, 서정시

서정적, 희망적, 미래 지향적, 의지적  
희망, 긍정적 / 고통, 설움 / 희망의지  
자연 사물 / 청유형, 공감 / 대구, 설의

2. <답>

받아들이라, 요청 / 함께 갈 것 / 뿌리 깊은 벌판, 마주  
잡을 손

3. <답> 고통

4. <답> 상한 갈대, 부평초 잎, 상한 영혼 / 뿌리, 물,  
마주 잡을 손 / 새순이 돋음, 꽃이 피م, 성숙한 삶

5. <답> 상처, 성숙 / 새순, 꽃, 개울, 등불 / 해, 고  
통, 설움, 캄캄한 / 뿌리 깊은 벌판 / 마주 잡을 손

## 서술형

1. <답> 상한 갈대, 상한 영혼, 부평초 잎

2. <답> 청유형, 설의적 어미를 반복하여 고통과 대결  
하고 맞서려는 자세와 의지를 강조한다.

3. <답> 밀동 잘리어, 뿌리 없이 흔들리는, 캄캄한 밤,  
고통과 설움의 땅

4. <답>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 이 세상 어  
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5. <답> 고통과 상처를 이겨낸 새로운 세계를 상징한  
다.

6. <답> 고통과 상처는 영원한 것이 아니며 일시적인  
것임을 상징한다.

7. <답> 고통을 이겨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를 상  
징한다.

8. <답> 고통을 회피하지 맑고 고통에 맞서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형상화하고 있다.

9. <답>

1) 유사한 시구와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  
하고 있다.

2) 상징적이고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3) 청유형의 문장과 설의적이고 점층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적 자세를 나타낸다.

10. <답>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  
하십시오. 그런 후 그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견  
딘다면 결국 당신은 성숙해질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는 삶을 살고자 하  
는 의지, 즉 이 시의 주제가 드러나도록 서술하되 두  
문장 이상의 말로 서술하였다면 답안으로 인정한다.

11. <답> 살면서 겪는 고통과 시련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고통을 수용하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고통을  
함께 극복할 삶의 동반자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  
라’와 관련된 내용, 즉 살면서 겪는 고통이나 시련은 영  
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우선 서술하고 ‘캄  
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와 관련된 내용, 즉 고통이나 시련을 함께 극복  
해 나갈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서술하  
였다면 답안으로 인정한다.

12. <답> ‘상한 갈대’, ‘상한 영혼’, ‘뿌리 없이 흔들리  
는 부평초 잎’은 ‘고난에 빠진 민중’을 의미한다.

‘상한 갈대’, ‘상한 영혼’,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 중 두 가지 이상을 정확하게 서술하되 ‘~은(는) ‘고  
난에 빠진 민중’을 의미한다.’와 같은 하나의 문장 형식  
으로 서술하였다면 답안으로 인정한다.

13. <답> 살면서 고난이나 시련이 찾아오면 회피하지  
말고 그 고통을 직시하자는 의미이다.

고난이나 시련과 같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세의 의미로 서술하되 ‘~ 의미이다.’와 같은 하나의  
문장 형식으로 서술하였다면 답안으로 인정한다.